

● 연중 제 26주일 강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마태 21,31).

너무나도 충격적인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느님에 대해 잘 알고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자기들보다도 먼저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혁명적 말씀이었지요.

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끝내 그 답을 찾지 못해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충격 선언을 들은 이유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줄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의 길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행동으로 보인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이었지요.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에게는 아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일이 아주 바빴던가 봅니다. 농부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하여라”(마태 21,28)고 청합니다. 이 말에 첫째 아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을 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생각이 미친 만아들은 곧 뉘우치고 일하러 갑니다. 만아들에게 거절당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일을 시킵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요한 21,28).

그러자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마태 21,30)하고 대답은 합니다. 하지만 대답만 하고 아버지의 일은 아랑곳없이 곧 다른 곳으로 놀러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

냐?”(마태 21,31)

성경 안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선뜻 “만아들입니다”(마태 21,31)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답만 하고 따르지 않은 아들보다는 뉘우치고 밭에 간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아들이라는 데에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곧 명확해집니다.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더라도 반성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느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대답만 잘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부부가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한 주 유소에 들어갔습니다. 기름을 넣는 동안 주유소 직원이 다가와 차 앞 유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거의 채워지고 유리가 거의 닦아질 무렵 남편이 주유소 직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유리가 잘 닦이지 않았네요. 다시 한 번 잘 닦아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열심히 유리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남편은 직원을 불러 소리쳤습니다.

“잘 좀 닦아보세요. 유리가 전혀 닦이지 않았잖아요.”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차 유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닦이지 않는다고 화가 난 남편은 차 문을 열어 곧 뛰쳐나갈 태세였지요. 이때 옆에 있던 부인이 남편의 안경을 빼서 닦아주었습니다. 순간 남편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더러웠던 것은 차 유리가 아니라 자기 안경알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며 남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과거에 잘못된 길을 걸었더라도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하느님께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기를 닦아야 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내 눈에 남의 잘못들만 보인다는 것은 내 안에 나쁜 것이 있다는 증거이지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화하고 상대방의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 어떠한 지식보다도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마태 21,31)는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기양 신부(서울대교구 오금동본당 주임)

내적 미소

옛날 중국의 도교에서는 지속적인 내적 미소, 곧 자신에 대한 미소는 건강과 행복과 장수를 보장한다고 가르쳤다. 왜일까? 자신에 대한 미소는 자신에게 사랑을 쪼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신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내적 미소를 가지고 사는 삶은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다.

* ‘내적 미소’는 자기 안에 미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맨 먼저 눈가에 미소를 지은 뒤 그 미소를 몸 구석구석에 보내는 것입니다. 배가 불편하면 배쪽에, 발목이 안 좋으면 발목에 미소를 보내면 놀랍게도 안 좋던 부위가 스프르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몸과 마음에 자유의 기운이 돌게 됩니다.

●공소일반공지 ●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익의 성가대장에게
-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 바느질대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9월 순교 성월 기도

-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교회를 이 땅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소서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께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바니기도회 안내

10월 1일 7:30pm 이동기 형제집

◎ 사목회의

오늘 미사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10월은 4구역에서 안내를 담당합니다.

◎ 연도안내

최탁열 요아킴 형제의 부친이신 최병석님이 한국에서 9월11일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정숙하고 깨끗이 사용합시다.

◎ 주간 전례

- ▶ 9월30일(화) 오후 8시, 연중 제 26주간화요일
- ▶ 10월 2일(목) 낮 12시, 수호천사기념일
- ▶ 10월 3일(금) 오후 8시, 연중 제 26주간금요일

◎성시간

10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미사와 함께 성시간

◎예비자 교리

9월 30일 예비자 교리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교할 수 있도록 선교에 힘을 써주시시오.

◎성모회 단풍관광

일시 : 2008년 10월4일 토요일

장소 : 산상호수 및 Prince Edward 주립공원

출발 : 8시 출발(7시 50분까지 성당집결)

◎ 이민자들을 위한 미사

일시: 10월 19 오후 2시

장소: 해밀턴 주교좌성당

◎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

사순 2주, 3주 주님의 탄생과 수난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일시: 2009년 3월9일 - 3월 23일 14박15일

순례비용: \$3,400(추가 비용 없음)

신청마감: 2008년 11월 9일(선착순 30명)

신청: 선교부장

가정에 없어야 할 10가지

1. **비난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간의 비난은 난파선의 밑창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2. **욕설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욕설은 밥에 흠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3.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간의 원망은 잘 끓인 국에다 찬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4. **속임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들 간의 속임수를 쓰는 것은 자라는 나무의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5. **폭력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들 간의 폭력은 윗물을 흐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6. **고집이 없어야 합니다:** 지나친 고집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과 같습니다
7.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비밀은 가정을 파괴시킬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8. **시기가 없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시기는 야간에 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9.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은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10.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간의 계산은 도배지에다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2008-38

2008. 9. 28.

연중 제 26주일

- ▶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10월- 3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사 전례

해설 | 노재현 차주 해설 이 민

화답송 | 주님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도다
나도 내 양들을 아나니, 그들은 나를 따라오는 도다. ◎알렐루야

성가

입당 (20) 어둠을 밝히소서
봉헌 (214) 주께 드리네
성체 (182) 신묘하온 이 영적
퇴장 (285) 103위 순교 성인

독서

9 월 28일	서원일	서소영
10월 5일	노재현	노정은
10월 12일	박용대	박명옥

봉헌

9 월 28일	김직현	김인자
10월 5일	서원일	서소영
10월 12일	노재현	노정은

복사

9 월 28일	구한힘	이현재
10월 5일	류지현	이수민
10월 12일	구하람	김건우

천교

9 월 28일	환희	10 월 5일 장미
10월 12일	백합	10 월 19일 신비